

서울시 '양자과학기술' 인재양성 박차

SQC 산업전문과정 2기 교육생 모집

서울시가 양자컴퓨팅, 초정밀 센서, 양자암호통신 등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양자과학기술' 분야 산업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과 함께 양자과학기술 교육 과정인 서울퀀텀캠퍼스(Seoul Quantum Campus, 이하 SQC)의 '산업전문과정' 2기 교육생을 10월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양자과학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양자기술 사업화 심화 과정 교육인 서울퀀텀캠퍼스(SQC)

를 신설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제1기 서울퀀텀캠퍼스(SQC)를 운영한 결과 바이오, AI, 물류, 통신, 컴퓨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양자기술을 접목한 20개 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7개의 우수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해당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했으며, 해외 우수 기관과의 기술 교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SQC 산업전문과정' 2기는 국내외 산학연 양자기술 사업화 분야 전문가들이 교수진으로 다수 참여하는 가운데,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8월 7일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2024년 10월 15°C 기후의병 집중의 날을 맞아 열린 '탄소중립! 밖에서 제대로 실천 경진대회'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명시, 12일 민원·정책제안 '공감 콘서트'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서 개최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는 '공감 시정'을 위한 소통의 장을 연다.

시는 오는 12일 오후 2시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감' 콘서트를 개최한다.

'공감' 콘서트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 민원이나 정책 제안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시민들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운영돼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연극·마술·스트리트 댄스가 혼합된 아이큐브 창작매지컬 공연, 광명시립합창단의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으로 구성된다.

특히 '토크콘서트'에서는 시민들이 가장 공감한 정책과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눈다. 사전에 실시한 시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 관심도와 공감도가 높은 정책을 선별했고, 박시장이 현장에서 직접 해당 정책 취지와 향후 추진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며 소통할 예정이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이번 행사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9 | 해질 / 19:56

7월 9일 (수) 음력 : 6월 15일

수도권 날씨 27~36°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4/34, 동두천 24/34, 가평 22/34, 파주 24/34, 서울 27/36, 양평 24/34, 인천 26/34, 수원 27/36, 용인 27/36, 평택 25/3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지갑-서울시민카드 앱 통합 10월말 본격운영... 앱 명칭 공모

서울시 '나의서울+' 서비스 추가 생애주기별 필요정보 자동 안내 명칭 제안자 100명에 '커피쿠폰'

주말 아침, A씨는 쌍둥이 자녀들과 독서한강공원을 찾았다. 서울지갑+시민카드 통합앱에 등록된 다둥이카드를 활성화하자 수영장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었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을 둘러 통합앱으로 책을 대출했다. 저녁에는 동네 체육시설을 찾아 앱 태그 후 운동도 했다.



통합앱 명칭공모 포스터. /서울시

다둥이·임산부카드 등록과 사용, 청년수당 등 다양한 지원 자격 확인부터 국가기술자격증과 같은 전자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플랫폼 '서울지갑' 앱과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 등 시설 이용에 필요한 모바일 회원카드 '서울시민카드' 앱이 통합된다. 10월말 본격 운영 예정이다.

◆ 복지지원 자격 확인부터 도서관·체육시설 이용까지

서울시는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공공서비스 플랫폼 '서울지갑'과 공공시설 모바일 회원카드 '서울시민카드'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지갑'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34종의 증명서 발급과 청년 월세 등 복지서비스 신청 자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또 다자녀 혜택을 위한 다둥이행복카드, 임산부카드 등 모바일카드 등록 및 사

용은 물론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탑재했다. 현재 누적 가입자는 15만 명이다.

'서울시민카드'는 시립·구립 도서관, 체육시설을 비롯해 청소년센터, 장난감 도서관 등 837개 시내 공공시설 이용시 사용가능한 모바일 통합회원카드로 현재 34만 명의 시민이 이용 중이다.

'서울지갑+서울시민카드' 통합앱은 단순 기능을 합치는 것을 넘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쌍방향 플랫폼으로의 진화가 목표라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 연령별 맞춤 정보 서비스인 '나의서울플러스' 신설

이를 위해 우선 새로운 통합 앱에 맞춤형 혜택 기능인 '나의서울+(플러스)'

서비스가 추가된다. 청소년부터 중장년, 임산부, 다자녀가족 등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해 준다.

회원가입과 인증 절차도 QR코드만 스캔하면 누리집 로그인이나 서비스 인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확대하고 있어 한층 더 편해진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데이터 관리서비스도 확장해 각종 정보의 불법적 위변조 방지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10월 통합 앱 출시를 앞두고 기존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 이용자의 데이터 이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지갑 사용자는 간편번호 재설정만으로 통합앱을 사용할 수 있고, 서울시민카드 이용자는 올해 말까지 정보 이관에 동의하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시는 서울시민카드가 12월 말 폐기 예정인 만큼 올해 안에 동의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9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 엠보딩을 통해 통합 앱 명칭 공모도 진행한다. 시는 추첨을 통해 우수제안자 1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의 통합은 시민 일상 속을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디지털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맞춤형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서울생활을 한층 더 스마트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고대 정시 합격선, 연대보다 4년 연속 높아

인문·자연계열 모두 고대가 더 높아 의대 정시 점수 두곳 다 전년비 하락 서울대, 국수탐 백분위 평균 비공개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고려대학교가 인문·자연계열 모두에서 연세대학교보다 높은 합격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정시 점수는 두 대학 모두 전년도보다 하락했다. 반면 서울대학교는 국수탐(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평균점수를 비공개하며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8일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및 대학별 발표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국수탐 백분위 평균 70% 컷 기준으로 고려대 자연계열은 94.49점, 연세대는 94.04점으로 고려대가 소폭 높았다. 인문계열도 고려대 94.00점, 연세대 91.73점으로 격차가 두드러졌다. 서울대는 2020학년도 이후 처음

으로 백분위 점수를 비공개했다.

고려대는 최근 4년간 인문·자연계열 모두에서 정시 합격점수가 연세대보다 높게 형성돼 왔다. 자연계열의 경우 ▲2022학년도 93.99점 ▲2023학년도 95.06점 ▲2024학년도 95.09점 ▲2025학년도 94.49점으로 집계됐으며, 인문계열은 ▲2022학년도 93.33점 ▲2023학년도 94.16점 ▲2024학년도 94.21점 ▲2025학년도 94.00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세대는 자연계열이 94점대 초반, 인문계열은 90점 초반을 유지하며 고려대와 격차가 이어졌다.

2025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이 크게 확대되면서 자연계열 상위권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했다. 고려대 자연계열은 전년도보다 0.6점, 연세대는 0.19점 떨어졌다. 의대 정원 확대에 의해 최상위권 수험생이 타 대학으로 이동하면서 이들 대학의 정시 합격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현진 기자

서울대는 2025학년도 정시 합격선으로 자체 환산점수를 발표했다. 자연계열은 401.5점, 인문계열은 395.7점으로, 모두 600점 만점 기준이다. 그러나 이 환산점수는 수능 표준점수와 가중치가 연동된 방식으로, 수험생들이 해마다 변하는 수능 난이도를 고려해 전년도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정시 합격선 비교를 더욱 어렵게 만든 요인은 대학별 점수 발표 기준의 변화다. 기존에는 국수탐 백분위 평균점수(최종등록자 기준 70%컷)를 중심으로 공통 기준이 유지됐으나, 올해부터 연세대와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 다수가 각 과목별 점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고려대는 국수탐 백분위 평균점수(70%컷)와 함께 과목별 점수도 함께 공개해 일관된 기준을 유지했다.

메트로 한줄뉴스



▲관세폭탄 앞두고...아마존, '프라이데이' 4일로 늘렸다 /사진 뉴시스
▲중국, 74개국에 '30일 무비자 입국' 확대... "관광 활성화"

▲"젤렌스키, 트럼프와 주미 우크라이나 대사 교체 논의"
▲러 "브릭스, 달러체제서 독립중...러-중 작년 루블·위안화로 335조원 거래"

▲후주 총리, 15일께 방중...다원항 운영권 회수 논의 예정
▲"美트럼프 행정부, 8일 방위비 GDP 3.5%로 증액토록 타진"